

해외

중국의 창업 열풍과 지원 환경

중국 정부는 취업난 해결과 신경제성장 동력의 육성을 목표로 창업을 통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중창업 · 만인혁신(大众创业 · 万众创新)'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창업을 방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 · 철폐하고, 창업 이해관계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창업 공간을 설립하는 등 효율적인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의 창업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창업 지원 정책 자료와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중국 창업의 현황과 창업 지원 환경을 분석 · 정리하였다.

I. 들어가면서

중속성장(7% 내외)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态) 시대에 진입하면서, 중국은 새로운 성장 돌파구로서 '창업을 통한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올해 3월 개최된 양회(两会)에서 정부사업 보고를 통해 '대중창업 · 만인혁신(大众创业 · 万众创新)'을 천명하고, 이를 경제발전의 엔진으로 삼아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의 각 정부부처들은 민간 주도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행정규제를 축소 · 폐지하고 다양한 재정적 지원정책을 제정 ·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학과 연구소, 창업 유관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중창공간(众创空间)이 활성화되고 알리바바, 샤오미 등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창업기업의 성공신화는 청년들로 하여금 적극

적으로 창업전선에 뛰어들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 대학 졸업생 중 창업을 선호하는 졸업생의 비중은 2014년 3.2%에서 2015년 6.3%로 약 2배 증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창업 열풍은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어, 중국의 극심한 취업난 문제 해결에 일조하고 있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1,066만 명에 달해 올 한해 정부 취업 목표인 1,000만 명을 일찌감치 달성했다.

우리나라 역시 ‘창조경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창업 활성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대학생의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의 경우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중국 대학생보다 창업에 소극적이며, 경쟁력 있는 창업 생태계 구축 미흡으로 창업 활기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창업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중국의 창업 현황과 창업 지원 제도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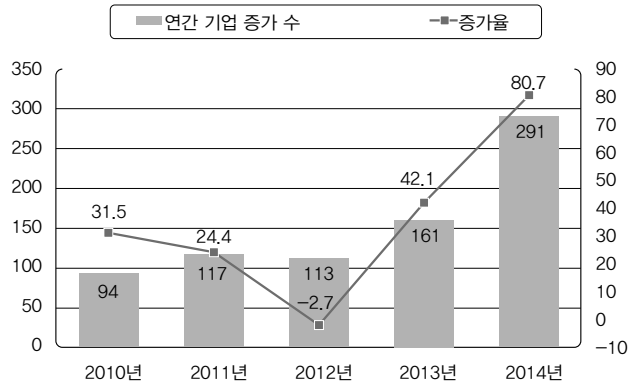
II. 중국의 신규 창업 현황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공상총국’)의 발표에 의하면, 2014년 말까지 공상총국으로부터 영업허가증을 획득한 업체는 일반 기업, 자영업자, 농민전업합작사를 포함하여 총 6,932만 개에 달한다. 그중 일반 기업 수는 1,819만 개, 자영업 수는 4,984만 개, 농민전업합작사는 129만 개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정부에 등록된 업체 중 2014년 신규로 등록된 업체 수는 총 1,292만 개로 전년 대비 14.2%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 기업은 365만 개로 전년 대비 45.9% 늘어났다. 이는 하루 1만 개의 기업이 새롭게 생겨난 것으로 창업 열풍이 거세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도별 일반 기업의 순증(연간 창업 수-연간 폐업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도에 80.7%로 증가하여 어느 해보다 가장 빠른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연도별 일반 기업 순증 추이

(단위: 만 개, %)



출처: 중국 공상총국 연도별 발표자료 정리.

최근 창업 분위기가 가장 활발한 도시는 광둥성(广东省)에 소재한 선전(深圳)이다. 2014년 기준으로 선전 인구 1백 명당 기업(일반 기업, 자영업자, 농민전업합작사 포함) 수가 16개에 달해 평균 6명의 선전 시민 중 1명이 CEO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전 다음으로 창업 분위기가 활발한 곳은 산둥성(山东省)에 위치한 칭다오(靑島)로 통계상 평균 인구 10명당 1명이 CEO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 상하이(上海)가 인구 16명당 1명, 베이징(北京)이 인구 22명 당 1명이 CEO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 내 신규 창업 기업 수가 증가한것은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시행에 힘입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중국은 회사법 개정을 통해 창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였던 창업비용을 완화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철폐하거나 축소하는 등 창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다양한 투자처를 모색할 수 있는 대중 창업 공간이 활성화됨에 따라 신규 창업 기업의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Ⅲ. 중국의 창업 지원 정책

중국의 창업 열풍 기반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있다. 우선 중국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제도 정비를 단행하였다. 회사법 개정을 통해 등록자본금 및 기타 등기 관련 사항을 완화하여 창업에 대한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추었다. 예전에는 등록자본금이 부족해서 아이디어가 좋아도 창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등록자본금 최소 요건을 폐지하고 출자 방식도 자율화함으로써 '1위안'만 있어도 창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고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무원 의견'을 통해 '삼증합일(三证合一)'제도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영업집조, 조직기구코드증, 세무등기증 등 세 가지 증서를 취득해야지만 영업을 가능했으나 이를 하나의 증서로 통합시켰으며, 창업 소요 시간도 1개월에서 3일로 단축하였다. 그 밖에 창업 시 준비해야 할 서류도 26종에서 절반으로 줄이고 서류 작성을 위해 필요했던 데이터 역시 기존의 166개에서 74개로 간소화하였다.

리커창 총리가 '대중창업·만인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을 제창한 이래 이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하나는 2015년 국무원이 발표한 '창업 공간 발전을 통한 대중혁신창업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发展众创空间推进大众创新创业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이며, 다른 하나는 2015년 6월 발표된 대중창업, 만인혁신 장려 정책 조치에 관한 의견(关于大力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若干政策措施的意见; 이하 '정책의견')이다.

'지도의견'은 2020년까지 대중 창업 공간 등 새로운 창업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① 대중 창업 공간 확대, ② 창업 진입장벽 완화, ③ 과학·기술인, 대학생 창업 장려, ④ 혁신 창업 공공서비스 지원, ⑤ 창업으로 재정자금을 유인, ⑥ 창업 투자자금 조달 시스템 완비, ⑦ 혁신 창업 행사 다양화, ⑧ 혁신형 창업 문화 분위기 조성 등의 8가지 중점 임무를 제시하고 있다.

'정책의견'은 보다 구체적인 정책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창업 촉진을 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창업을 저해하는 독점 및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통해 창업을 저해하는 요소를 혁파하여 창업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둘째, 창업 성격에 부합하는 금융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은행의 창업 지

원 방식을 혁신하고, 창업 관련 재정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창업투자 자금의 조달 경로를 다양화하였다. 셋째, 그동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던 창업 관련 세제 지원을 확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인큐베이터 우대 혜택, 창업 초기 기업 투자자 세제 혜택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넷째, 광범위한 인력 유입 및 유인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기술인력의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교육을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대학, 연구기관 등의 전문기술인력이 창업 목적으로 퇴사할 경우, 3년 내 기존 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다섯째, 다양한 형태의 창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새로운 유형의 인큐베이터를 구축하고, 인터넷 플러스 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창업 관련 기술 플랫폼, 지역 플랫폼 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창업 관련 전문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기업 관리, 법률 자문, 물류 등 전문 서비스업 발전을 지원하며, 전자상거래 기반 확충을 통해 귀향 창업을 집적화한다.

표 1. 창업 관련 중국의 정책 발표 일시

발표 시기	주요 내용	발표 기관
2015년 6월	<p>대중창업, 만인혁신 장려 정책 조치에 관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촉진을 위한 시장 환경 조성 - 창업·혁신에 부합하는 금융 지원의 획기적 강화 - 창업·혁신 세제 혜택 신설 및 확대 - 창업 인력 유입 촉진 및 유인체계 강화 - 다양한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 창업·혁신 관련 전문 분야의 발전 촉진 	국무원
2015년 3월	<p>창업 공간 발전을 통한 대중혁신창업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창업 공간 확대 - 창업 진입장벽 완화 - 과학·기술인, 대학생 창업 장려 - 혁신 창업 공공서비스 지원 - 창업을 위한 재정자금을 유인 - 창업 투자자금 조달 시스템 완비 - 혁신 창업 행사 다양화 - 혁신형 창업 문화 분위기 조성 	국무원
2014년 7월	<p>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고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무원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상총국에서 책임지고 '삼중합일' 제도를 추진할 것 - 행정 심의 대폭 감소 - 지역 및 업종별 독점 행태 타파 	국무원

<표 계속>

발표 시기	주요 내용	발표 기관
2014년 3월	<p>「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개정안 정식 발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 등록자본금 규정 폐지 (과거 3만 위안~500만 위안의 최저 등록자본금 요구) - 현금출자 의무비율 규정 폐지 (과거 등록자본금 중 현금출자 비중 최소 30% 요구) 	전국인민대표대회
2014년 3월	<p>‘전국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 정식 오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시스템을 통해 정부에 등록된 각 지역별 기업 기본정보 및 처벌 경력 등 확인 가능 (사이트 주소: http://gsxt.saic.gov.cn) 	공상총국

출처: 중국 정부 발표 자료.

또한 중국 정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생 창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가 배포한 ‘2015년 전국 대학 졸업생 취업과 창업에 관한 통지(2015年全国普通高等学校毕业生就业创业工作的通知)’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앞으로 4년 내에 ‘80만 대학생 창업 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마다 탄력적인 학제를 도입하여 재학생의 휴학 창업을 허용하고, 대학 내 창업 관련 전문교과과정을 개설하도록 촉진하였다. 또한 성공한 창업자 등을 겸임교수로 초빙하여 학생 창업 멘토링 및 창업 관련 경연대회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중국 정부는 대학생들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대학교를 통해 창업을 원하는 당해 졸업생들에 한해 ‘대학교 졸업생 자체 창업증’을 발급하여 본 증서를 소지한 학생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창업자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3년간 지급해야 할 영업세, 도시 유지 건설세, 교육비 부가세, 개인 소득세 등 세금 항목들을 연 8천 위안 이내로 면제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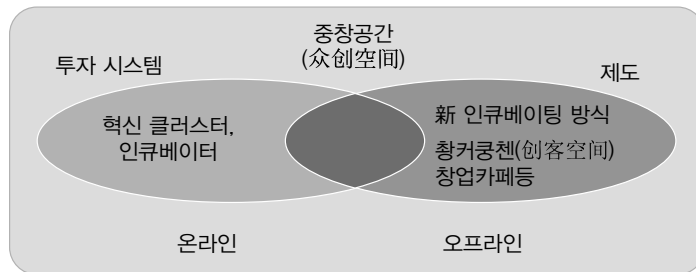
한편, 중국 정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중국 유학생의 귀국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계속해서 실행하고 있다.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에서는 2006년부터 ‘유학 인원 귀국 창업 지원 계획’을 실시하여 자금 지원, 세수 감면, 유학생 창업 단지 조성 등을 통해 귀국 유학생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에서 중점 지원하는 하이테크 산업에 속하는 유학생 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15%(기준 25%)로 감면하고 연구·개발 비용은 실제 발생액보다 확대(150%) 적용하여 보다 많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중국 각지에 산재한

귀국 유학생 창업단지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4년 중국 난징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귀국 유학생 창업단지는 2013년 베이징과 상하이로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 280개가 건립되었으며, 입주 기업 수는 1.6만 개, 귀국 유학생 창업 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귀국 유학생 수는 4만 명에 달한다.

IV. 대중 창업 공간: 중창공간(众创空间)

중국 정부는 국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중창공간(众创空间)’을 대표적인 창업 지원 플랫폼으로 구축해 국민의 창조성을 발휘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엔진을 창출하도록 도모하고 있다. 중창공간은 기존의 혁신 클러스터, 인큐베이터에 창커쿵젠(创客空间), 창업카페 등의 새로운 인큐베이팅 방식이 추가된 개념으로 온·오프라인 공간, 투자 시스템, 제도 등을 총망라한 창업 지원 플랫폼을 의미한다([그림 2] 참조). 현재 베이징 6곳, 상하이 10곳, 광저우 6곳, 서부 라싸(拉萨), 쿤밍(昆明) 24곳 등 총 50곳에서 중창공간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림 2. 중창공간의 개념도



출처: 광배성(2015),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업, 포스코경영연구원, p.6.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중창공간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베이징의 ‘중관촌(中关村)’에 소재해 있다. 중국 전체 벤처 투자금의 1/3이 중관촌에 집중되어 있고, ‘창업’, ‘투자’에서부터 ‘상장 및 대기업 성장’과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로 창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다. 중관촌의 중

창공간에서 창업에 성공한 창업자들이 새로운 창업자를 발굴하는 데 다시 투자함으로써 창업 열풍을 지속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2014년 6월에는 200m 길이의 ‘중관촌 창업 거리(innovation street)’가 조성되었으며, 현재까지 20여 개의 스타트업 지원사, 200여 개의 펀드 프로젝트, 400여 개의 창업가 팀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중관촌은 베이징대, 칭화대 등 40여 개 대학과 200여 개의 국가과학연구소, 122개의 국가지정 실험실·연구센터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혁신적인 기술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뛰어난 인력풀을 갖추고 있다. 또한, 약 100여 개의 창업 인큐베이터센터가 있어, 대학생 창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창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처쿠(车库)카페와 같은 창업카페들을 설립하여 창업지망생과 투자자가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혁신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창업카페에서는 매월 투자자에게 사업 계획 발표회가 개최되며, 법률 자문, 클라우드 서버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처쿠카페

- 2011년 4월 중관촌에 개인이 설립한 최초의 카페형 인큐베이터
- CDN 서비스 기업 Chinesecache의 CEO이었던 쑤디(苏荪)에 의해 개업
-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차고에서 벤처를 시작한 것에서 착안하여 카페명을 차고(처쿠, 车库)로 작명
-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교류와 창작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커피 한 잔 값에 회의실, 인터넷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V. 결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신창타이 시대에 접어들면서 창업을 통한 취업난 해소는 중국 정부의 큰 과제가 되었다. 특히, 중국 리커창 총리는 ‘대중창업 · 만중혁신’을 강조하면서 사회적으로 창업에 유리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매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왔다. 제도 정비를 통해 창업의 문턱을 대폭 낮춰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중창공간과 같은 창업 지원 플랫폼 건설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창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또한 우수한 청년인력이 창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들은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도전정

신을 고취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도 '창조경제'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창업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실제 많은 젊은이가 창업의 꿈을 품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실제 창업으로 이끌 만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고,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우리나라 창업 환경의 한계로 지적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율적이고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국가, 기업, 그리고 대중이 상호 협력하여 혁신을 일구어 내는 선진 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작성: 장상윤 산동사범대학 강사)

참고문헌

곽배성(2015).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업. 포스코 경영연구원.
한국무역협회(2015). 한·중·일 청년창업, 중국 열풍, 일본 미풍, 한국은... . Trade Brief, 제 57호.

中国国务院(2015). 关于发展众创空间推进大众创新创业的指导意见.
中国国务院(2015). 关于大力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若干政策措施的意见.
中国教育部(2014). 2015年全国普通高等学校毕业生就业创业工作的通知.
中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2014). 关于支持留学人员回国创业意见的通知.
王辉耀, 苗绿(2013). 中国海归发展报告(2013版). 社会科学文献出版社.
麦可思研究院(2014). 2014年中国大学生就业报告. 社会科学文献出版社.

中国国务院. govinfo.nlc.gov.cn
中国国家统计局. http://www.stats.gov.cn
中国创业网. http://www.cye.com.cn

사랑이 희망입니다.